

젊은 날의 가치 여전히 유효,  
낮은 곳 살피며  
피끓는 시간 되찾을 터

신학자이자 출판인인 김성재 교수(55)는 연초 며칠 동안 꽤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. 월간 〈살림〉이 1월부터 휴간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서였다. 〈살림〉은 계간 〈신학사상〉과 함께 인간 김성재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모세혈관 같은 것인 데다 이 두 잡지의 태생은 그의 정신적 사부역이었던 고 안병무 선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. 〈살림〉은 안병무 선생이 〈현존〉이란 제호로 창간했으나 1980년 전두환 정권 때 〈창작과 비평〉등과 함께 폐간됐다가 복간될 당시 〈살림〉으로 제호를 바꾼, 이른바 민중신학자 안병무 사단의 적통을 상징하는 귀한 잡지이다. 독재와 맞서 싸우던 시대, 신경림 김지하 백낙청 강만길 등 민주화 투쟁 인사들의 절개 있는 글들은 한때 이 잡





